



모내기_이은규씨택 논 (1960년대)

- 3-1 시은정(四隱亭) 196
- 3-2 음애 이자 고택 201
- 3-3 음애 이자 묘역 (세장지) 207
- 3-4 지곡동 도요지(陶窯址) 213

3 문화유산과 문화자원





3-1. 사은정(四隱亭)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61 [지곡동 615]

건립시기 : 조선 전기

문화재 지정 : 용인시 향토유적 제50호 (2001년 3월 지정)

사은정(四隱亭)은 조선 전기 중종(中宗)때의 명현이며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이자 동방사현(東方四賢)중의 한사람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1482~1519)를 비롯하여 정암과는 10촌간이며 유학자로 식견이 높기로 유명한 방은(方隱) 조광보(趙光輔)와 기묘명현(己卯名賢)인 회곡(晦谷) 조광좌(趙光佐) 형제, 그리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때 연루되어 조광조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화를 당한 음애

(陰厓…) 이자(李耆:1480~1533) 선생 등 4현들이 우정을 기리고, 은거하여 노년의 생활을 즐기며 강학(講學)을 위해 건립했던 유서가 깊은 정자이다.

조광조는 증중반정으로 천거를 받아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한편 선친묘가 지곡동에 있었던 음애 이자는 1504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해 1516년경 직제학이란 관직에 있었다. 방은 조광보와 회곡 조광좌 형제도 이곳에 농막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네 사람은 도의정신이 같고 학문을 연마하면서 친분이 깊었다.

조광조는 증중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당대의 실력자였다. 음애 이자는 비교적 일찍 출세해 당시 청렴한 관료들의 좌장이 됐다. 회곡 조광좌는 정암의 추천으로 지평이 되었으나 그의 형 조광보는 추천에 따르지 않고 거짓으로 광인의 모습을 하며 숨어 살았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조광좌도 무고에 연루돼 28살 나이에 장살을 당했다. 이자는 비록 화를 면했으나 충주 토계로 은거해 15년 후 세상을 떠났다.

사은정의 연혁을 밝혀주는 〈사은정 중수기(四隱亭重修記)〉에 따르면 정자의 이름을 사은(四隱)이라 한 것은 정암, 방은, 회곡, 음애가 서로 친하게 지내며 도의(道義)로써 사귀어 더불어 즐거워하고, 농사 짓고[耕], 나무하[薪], 낚시질하며[釣], 나물 캐는[菜] 네 가지를 낙으로 삼아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정자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 정자를 이곳에 지은 것은 근처에는 선현의 묘소가 있고 전원의 취미를 갖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뒤에 네 사람이 화를 당하고 정자 역시 피폐해지고 서로 화답하여 지은 글과 서찰도 없어져 전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음애공이 회곡의 아들 조수재(趙秀才)에게 보낸 글이 남아 있을 뿐인데 이글을 통해 위와 같이 은거하고자 한 뜻을 알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는 정암 조광조의 묘(용인시 향토유적 제2호)와 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심곡서원(深谷書院)(국가 사적)이 있다. 남쪽으로 약 1.5km 지점에는 이자의 묘(경기도기념 172호)와 후손들이 살던 고택(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호)이 자리하고 있다.

사은정은 1519년의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세웠으므로 16세기 초에 초창된 것으로 보인다. 「사은정 중수기」에는 1796년(정조 20)에 네 집안의 후손들이 그 뜻을 흠모하여 피폐해진 정자를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조(正祖) 때 중수하면서 단청을 다시 하고 서재(書齋)를 짓고 승사(僧舍)를 두어 보호하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변

에 사은정 외에도 다른 건물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99년(고종 36)에 이용구(李容九)가 지은 중수기에 “예부터 정자가 있었으므로 지금 새로 복원하면서도 편액은 옛날 그대로 사은이라 하였다”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정조 때의 중수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퇴락하였다가 조선 말기에 다시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원래의 규모에 외벽을 시멘트벽으로 바꾸고 전퇴에도 벽을 막아 좌우 칸에는 유리창을 달고 가운데 칸에는 출입문을 두었다. 1989년에는 옛 문헌을 고증하여 전면 3칸, 측면 2칸 초익공(初翼工)의 팔작집으로 중창하면서 마루를 높게 가설하여 누각처럼 꾸며 정자로서의 외관이 회복되었다.

사은정의 평면 구성을 보면 전면 3칸, 측면 2칸인데, 향좌측 두 칸에 걸쳐 누마루를 구성하고 오른쪽에는 방을 들였다. 측면 2칸 중 방 앞쪽을 반 칸으로 나누어 전퇴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쪽 측면 전퇴칸과 앞면에는 쪽마루를 덧달고 계자각으로 꾸민 난간을 설치하였다. 앞면 가운데 칸에는 누마루 바닥 높이까지 4단의 계단을 놓았는데, 내민 난간 때문에 마치 함입식(陷入式) 계단처럼 보인다. 지붕은 팔작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모습은 대지 73㎡(21.1평)에 25.92㎡(7.9평)으로 지어진 단층목조 와가 형태다. 한양조씨 회곡공파 종중과 한산 이씨 음애공파 종중의 공동소유로서 사은정 보존회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2016년 6월 15일에는 ‘사은정 건립 500주년 기념행사’가 사은정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양 조씨 회곡공파와 한산 이씨 음애공파 두 문중이 주도하였으며 이를 기념하는 한시 백일장이 개최되었다.

사은정 내에는 1796년(정조 20)에 민중현(閔鍾顯)이 지은 「중수사은정기(重修四隱亭記)」, 1899년(고종 36)에 이용구(李容九)가 지은 「사은정 중수기(四隱亭重修記)」, 비슷한 시기 정범조(鄭範祖)가 지은 「사은정기(四隱亭記)」가 전한다. 정자의 앞면 처마에는 전서체로 “사은정(四隱亭)”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는데 18세기 말 중수할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곡동의 음애 후손들과 보라동의 회곡 후손들이 〈사은정 보존회〉를 조직하여 선조의 유훈을 기리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3-2. 음애 이자 고택-금서재(琴書齋)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198번길 31-15(지곡동 297-2)

문화재 지정 : 경기 민속자료 제10호(1997년 12월 26일)

관리 : 한산이씨 음애공파종중

이 고택은 처음 지을 때부터 금서재(琴書齋)로 불렸으며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도로변 서측 기와집마을 내에 있다. 1850년대 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건금서재상량문(重建琴書齋上樑文)>에 따르면 이곳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알려진 음애공 이자(李耆)가 살던 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에는 원래 이자 선생이 돌아가신 후 종손이 거처하던 종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건할 때에는 예전 배치도를 참고하고 재목이나 자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택 좌측에는 근래에 건립된 ‘효문의공부조지묘(孝文懿公不祧之廟)’의 현판이 걸린 사당이 동향하여 있고, 고택에서 동북쪽으로 도로를 건너 지곡동 달래울 뒷산 줄기 능선상에 이자의 묘가 있다.

본채는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되어 ㄷ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는데, 별도로 사당을 짓는

일반 양반집과 달리 따로 사당을 두지 않았다. 다만 본채 북서쪽에 청방을 두고 단청을 하여 제사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곳에는 아무 칠이 없는 데 비해 이곳에만 단색으로 간단히 채색된 가칠단청이 베풀어져 있다. 본채는 서까래를 받치는 부재의 단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민도리집이다. 사랑채는 팔작지붕이고, 맞은편 나뭇간은 맞배지붕으로 좌우 날개채의 지붕 형태가 다르다.

고택은 원래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된 ‘ㄷ’ 자형 본채 앞쪽으로 ‘ㄱ’ 자형의 행랑채가 있어 튼 ‘ㄱ’ 자 형식의 배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랑채는 1934년에 소실되고 현재는 본채만 남아 있다. 근래에 전면에 담장을 두르고 사랑채 측면 쪽으로 사주문을 세워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7년 12월 26일에 경기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사랑채와 안채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경기 지역의 중류 주택 모습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고택을 홍보하기 위해 2017년 6월에서 10월까지 3회에 걸쳐 고택체험행사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고택에 대한 해설, '양반과 노비' 스토리텔링 놀이와 연극, 전통놀이 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SNS를 통해 고택을 직접 홍보하고 홍보물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고택의 구조와 조선시대 신분제'를 주제로 토론식 강좌도 진행되었다.

중건금서재상량문(重建琴書齋上樑文) - 발췌
〈상략〉

顧此智谷之村 돌이켜보건대, 이 **지곡(智谷)**¹⁾ 마을은
實是陰崖攸宅 실로 음애(陰崖)가 집을 짓고 산 곳이라네.

1) 지곡(智谷) : 용인 기흥읍의 자곡리(芝谷里)에 기와집말이 있다. 1754년에 간행된 이자(李紆) 선생의 문집(文集)인 《음애집(陰崖集)》에도 지곡(智谷)으로 돼 있고 1879년(정조13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도 지곡동(智谷洞)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지(芝)가 아닌 지(智)자를 사용하고 있다.

縱被群小人之深嫉 비록 많은 소인(小人)들에게 깊이 질시를 받았지만
獨爲免禍保身之賢 홀로 화를 면하고 몸을 지킬 현인이 되었고,
累荷列聖朝之垂褒 누차 열성조(列聖朝)가 포상(褒賞) 내림을 입었지만,
偏蒙錫田蠲稅之典 치우치게 전답(田畓)내리고 조세(租稅) 감면하는 은전을 입었네.

廟貌可肅 사당 모습이 엄숙하니
特賜世世不祧之恩 특별히 대대로 부조(不祧)의 은전(恩典)을 하사했고,
瑩域越瞻 무덤을 바라보니
亦有年年克禋之享 또한 해마다 제사를 흠향(歆饗)함이 있네.

主人 주인은
聖世隱士 성세(聖世)의 은사(隱士)이고
名家賢孫 명가(名家)의 현손(賢孫)으로,
既有遯跡之方 이미 자취를 숨길 방도를 지녔으니
十室村五畝宅 작은 고을의 다섯 이랑의 집을 소유하고,
特揭貫額之號 특별히 화려한 편액(扁額)을 당호(堂號)로 걸었으니
七絃琴一床書 칠현금(七絃琴)과 한 상의 서적(書籍)을 소장했네.

伯牙奏流水之音 백아(伯牙)가 유수곡(流水曲)을 연주하는데
獨恨鍾期之未遇 다만 종자기(鍾子期)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네.
公擇有山房之讀 공택(公擇)은 산방(山房)에서 글 읽는 것을 누렸는데
尙爲鑾坡之所譽 아직도 난파(鑾坡 한림원(翰林院)의 별칭)에서 칭예(稱譽)하는 바가 되었네.

自有先人舊廬 선인(先人)의 예전 집을 소유했으니
不改君子所樂 군자(君子)의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네.
第結構積有年所 다만 지은 지가 오래 지나서

而頽圯將無奈何	무너지려하니 장차 어찌 할 수 없네.
左撐右支	좌측에서 잡고 우측에서 지탱하여
匪特風雨之不庇	비바람을 막지 못함이 아니지만,
東傾西仆	동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넘어지려하여
政是日夜之爲憂	바로 밤낮으로 근심하네.
嗟夫	아,
思菴之遺蹟莫徵	사암(思菴) ²⁾ 이 남긴 발자취를 징험(徵驗)할 수 없어서
追憶良辰之杖屨	좋은 날 따르던 일을 돌아보고,
楓亭之舊址猶在	풍정(楓亭)의 예전 터가 오히려 남아 있으니
可惜勝地之溪山	빼어난 지역의 시내와 산이 안타깝구나.
八峯之院宇繕治	팔봉서원(八峯書院) ³⁾ 사우(祠宇)를 잘 수리했으니
寔賴多士慕古賢之力	이는 많은 선비들이 예전 현인 흠모(欽慕)하던 힘에 의뢰하고,
四隱之亭基荒廢	사은정(四隱亭) 터가 황폐(荒廢)했으니
尙待他姓合衆力之論	오히려 다른 성씨 여러분이 힘을 합하자는 의논을 기다렸네.
況乎	더구나
是宗孫居止之弊廬	이는 종손(宗孫)이 거처하시던 낡은 건물이니
卽名祖逍遙之遺跡	곧 이름난 조상께서 노닐던 자취가 남은 곳이네.
論以傳也 十一厥世	전해 온 것을 따지면 11세이고

語其久也 數百餘年	그 오래됨을 말하자면 수백여 년이라네.
地近松楸	지역은 선영(先塋)과 가까워
恒存愴慕之志	항상 슬피 사모하는 뜻을 두었고,
居多桑梓	주변에 상재(上梓)가 많아서
尙有敬恭之誠	오히려 공경하는 정성을 지녔다네.
苟無弊又改之規	참으로 낡은 것을 또 고치는 법이 없다면,
豈望舊維新之道	어찌 옛 것을 새롭게 하는 방도(方道)를 바라겠는가.
於是	이에
營之久矣	경영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勇然決焉	용감하게 결단하였네.
若夫土木之役	저 토목 공사를
迨今春可始	이번 봄에 시작하였는데,
至於房隴之物	방과 담장 등 재목은
仍舊貫何如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어떠랴.
考紙上之圖形	종이 위의 도형(圖形)을 상고하여
我志先定	나의 뜻을 먼저 정하였고,
異途傍之作舍	길가에 짓는 집과 다르니
僉謀又同	여러분들이 도모(圖謀)하여도 또 같으리라.

2) 사암(思菴) : 1516년(중종 11) 9월에, 용인(龍仁)의 부친 묘소아래에 이 건물을 짓고 기문(記文)을 썼다. 《음애집(陰崖集)》 2권에 〈사암 상량문(思庵上樑文)〉이 수록되어 있다.

3) 팔봉서원(八峯書院)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안길(문주리)에 있는 서원. 1582년(선조 15)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자(李紆)·이경연(李慶延)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位牌)를 모셨고, 1612년(광해군 4) 김세필(金世弼)·노수신(盧守愼)을 추가 배향(配享)하였다. 1672년(현종 13)에 계탄서원(溪灘書院)이 '팔봉서원(八峯書院)'으로 사액(賜額)되었다.

4) 좌(坐)는 경(庚)이고 향(向)은 갑(甲)이며, : 경좌갑향(庚坐甲向), 즉 뒷자리나 집터가 경방(庚方)을 등지고 갑방(甲方)을 바라보고 앉은 자리를 뜻한다. 서남쪽을 등지고 동북쪽을 바라보는 자리이다.

〈중략〉

因舊人之規模	예전 사람의 규모로 인하여
坐則庚而向則甲	좌(坐)는 경(庚)이고 향(向)은 갑(甲)이며, ⁴⁾
用新曆之選擇	새로운 책력(冊曆)을 선택했으니
日之巳而月之辰	날자는 사(巳)일이고 월건(月建)은 진(辰)이네.
戒子孫之守成	자손들이 지키며 이루기를 경계하니
政似平泉庄臺榭	정치 평천장(平泉庄)의 대사(臺榭, 정자)와 같고,
悅親戚之情話	친척들이 정답게 담화(談話) 나누는 것을 기뻐하니
殆同柴桑村杯罇	거의 시상촌(柴桑村)의 잔과 술병 같네.
更扁舊號琴書齋	다시 예전 당호(堂號)인 금서재(琴書齋)를 편액(扁額)으로 삼으니,
大絃小絃之音各殊	큰 줄과 작은 줄의 음률(音律)이 각기 다르지만
能彈宮商角徵羽之曲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의 곡조(曲調)를 탈 수 있고,
古文今文之體皆有	고문(古文)과 금문(今文)의 문체(文體)가 모두 있으니
善讀唐虞夏殷周之編	당우(唐虞)와 하은주(夏殷周)의 서적을 잘 읽네.

〈하략〉

〈참고문헌〉

이인영, 『내 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7)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경기도, 1998)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2003)
저자 미상, 『중건금서재상량문(重建琴書齋上樑文)』, 1850년대

김태근

3-3. 음애 이자 묘역(陰崖 李耆 墓域)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201번길 31-15(지곡동 산 11-17)

문화재 지정 : 경기도기념물 제172호(2000년 4월 7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二東面)과 기흥구 지곡동 경계의 부아산(負兒山:403.6m) 북쪽 기슭에 있는 묘역이다. 이곳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 이자 부부의 합장묘를 중심으로 같



음애 이자 묘역(2016년 여름)

은 산줄기에 위로는 아버지 이예견(李禮堅)과 형 이운(李耘)묘가 차례로 있고, 밑으로는 아들 이추(李秋)의 묘가 있다.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펴다가 기묘사화 때 파직되어 충청도 음성에 은거하여 살던 조선 중기의 문신 이자의 묘는 원형 쌍분(雙墳)이다. 첫번째 부인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의령남씨(宜寧南氏)와 두번째 부인 증정경부인 인천채씨(仁川蔡氏)가 합장되어 있다.



음애 이자 묘역(2016년 겨울)

묘역에는 봉분 앞 오른쪽에 묘비가 있으며, 가운데에 상석(床石)·혼유석(魂遊石)·주전석(酒煎石), 양쪽에 문인석(文人石)과 망주석(望柱石)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높이 약 2m의 봉분 아래쪽에 문비석(門扉石)으로 보이는 4장의 화강암 장대석이 ‘八’자모양으로 놓여 있다. 이들 석물은 혼백이 드나드는 묘문(墓門)을 상징하며 조선시대의 묘에서는 보기 드문데 이예견·이운의 묘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여타 사대부가의 분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묘비는 화강암이며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屋蓋)와 비신(碑身)·대석(臺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은 138×61×21.5cm이며 대석은 90×60×35cm이다. 비신 앞면에는 "朝鮮資憲大夫議政府右參, 贊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諡文懿李公耜之墓配贈 貞敬夫人宜寧南氏後配贈, 貞敬夫人仁川蔡氏祔(조선자헌대부의정부석참찬 증충정대부의정부좌찬성 시문의이공자지묘배 증정경부인의령남씨후배 증정경부인인천채씨부)라는 비문이 있다.

묘표의 후면에는 음기가 없다. 묘표는 1636년에 세운 것으로, 이자가 타계한 지 103여 년 만에 형인 이누의 고손(高孫)인 해창(海昌)이 세웠다. 비신은 규석이고 비좌는 화강암으로, 상단에는 12판의 복련을 두었고, 각 면에는 동자주와 안상을 조식하였다.

상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115×80×55cm이다. 문인석은 예관과 조복을 갖춘 채 읍하여 두 손으로 홀(笏)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묘역 앞에 양쪽으로 1기씩 있는데, 17세기 호석(護石)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크기는 높이 180cm, 너비 약 55cm이다.

이예견(1436~1510)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불린(不磷)이다. 아버지는 이형증(李亨增)이며 아들 넷을 두었는데 4째가 음에 이자이다. 1471년(성종 2)에 문과 별시에 급제하였으며, 이 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집의(執義)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벼슬이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1504년(연산군 10) 승지(承旨)로 재직할 당시 임금의 폭정을 극간(極諫)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고 유배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이예견의 묘는 이 묘역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데 봉분은 쌍분이며 부인인 선산김씨(善山金氏)와 함께 모셔져있다. 묘역에는 봉분 앞 오른쪽에 묘비가 있으며, 가운데에 상석(床石)·혼유석(魂遊石)·향로석(香爐石), 양쪽에 문인석(文人石)과 망주석(望柱石)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자의 묘처럼 봉분 아래쪽에 문비석(門扉石)으로 보이는 4장의 화강암 장대석이 ‘八’자모양으로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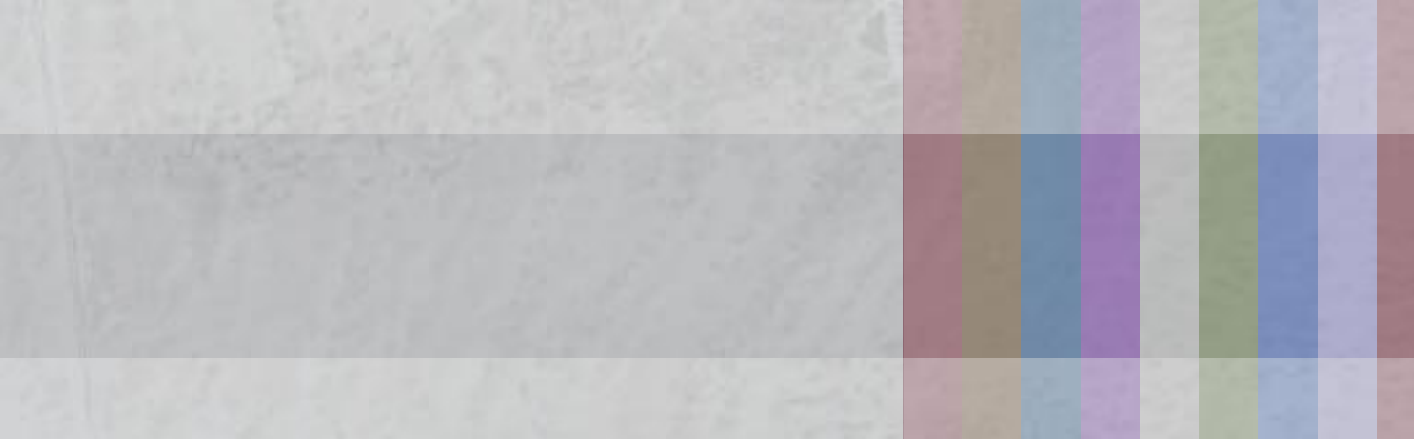
봉분은 전면에 호석을 둘렀으며 좌우쪽에 문인석을 세웠다. 문인석은 가슴 양쪽에 홀

(笏)을 들고 있는 복두(幘頭)와 공복(公服)이나 양관(梁冠)과 조복(朝服)의 형식과는 다른 관모(冠帽)의 복식으로 조각되어 있다. 관모를 묶는 끈이나 홀을 마주잡은 손가락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였으며, 조복이나 공복 형식의 문인석이 정착되기 전의 조선 초기 문인석의 형식으로 추정되어 1516년에 구비를 세울 때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묘비는 화강암이며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屋蓋)와 비신(碑身)·대석(臺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은 156×59×30cm이며 대석은 문힘×94×65cm이다. 비신 앞면에는 "朝鮮嘉善大夫行大司諫, 贈左贊成李公禮堅之墓, 贈貞敬夫人善山金氏祔(조선가선대부 행대사간, 증좌찬성이공예견지묘, 증정경부인성산김씨부)라는 비문이 있다. 뒷면 묘갈(墓碣)에는 '舊碑는 正德 丙子年(1516)에 세웠는데 오래되어 부스러져 읽을 수 없어서 248년 후인 癸未年(1763)에 다시 세우면서 읽을 수 없는 글자는 비워놓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따라서 현재 묘갈은 1763년에 다시 세워진 것으로 글은 8대손 이이장(李彝章)이 짓고 당대의 명필인 조유흥(曹允亨)이 쓴 것이다.

이운(李耘)(1469~1535)은 자는 중야(仲野)이며 부친은 이인견(李仁堅)이고, 생부는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예견(李禮堅)이다. 1501년(연산군 7) 신유식년문과(辛酉式年文科)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보임되었다가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이조좌랑(吏曹佐郎),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공조참의(工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를 거쳐 제주목사(濟州牧使), 진주목사(晉州牧使), 양양부사(襄陽府使)를 지냈다.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참여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봉되었다.

이운의 묘는 이예견의 묘 바로 아래 있으며 단분(單墳)이다. 봉분 전면에 이예견과 이자의 분묘처럼 4장의 화강암 장대석이 ‘八’자모양으로 놓여 있다. 봉분 정면에 가운데 방부원수(方趺圓首) 형식의 묘표(墓表)가 있으며 그 앞으로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다. 계절석 바로 밑에는 좌우로 동자석(童子石)과 망주석(望柱石)이 차례로 세워져 있다. 동자석은 전체적인 비례가 잘 맞고 전면에 끈을 묶은 표현이나 층을 지며 내려오는 복식 표현 등이 자연스러운 편이다. 망주석은 여의두문(如意頭文)이나 당초문(唐草文), 연주문(連珠文) 등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며 몸체 가운데 부분에 고리를 끼운 것처럼 보이는 홈을 파놓았다.



묘표는 143×49×19cm이며 대석은 33×80×50cm이다. 비양에 通政大夫行濟州牧使兼, 兵馬水軍節制使李公淑夫人竹山, 安氏合墓(통정대부행제주목사겸, 병마수군절제사이공숙부인죽산, 안씨합묘)로 되어있으며 비음은 마모가 심하다.

이추(李秋)는 이자의 아들로 일찍 별세하였다. 묘는 이자 무덤 바로 밑에 있으며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인 광주이씨가 부좌되어 있다. 묘전체가 새롭게 정비되어 문인석을 제외한 모든 석물들과 묘비도 최근에 세워졌다. 문인석은 복두에 공복을 입은 전형적인 형식이며 홀을 맞잡은 양손이 강조되어있다.

묘비는 思庵處士, 韓山李公諱秋之墓, 配廣州李氏 祔左(사암처사, 한산이공휘추지묘, 배광주이씨 부좌)로 되어있다.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문화원, 2001

3-4. 지곡동 도요지(陶窯址)

사은정과 음애 이자 묘역, 이자 고택 등을 제외한 지곡리 문화유적은 다음과 같다. 사기막골의 지명유래에서 보이듯 도요지(陶窯址) 3개소와 유물산포지 등이다 <지곡동 도요지> 편은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1999,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45~55쪽을 옮긴 내용이다.

1)芝谷里 1호 요지

(1)성격: 朝鮮 19世紀 末 黑磁·甕器窯址

(2)위치: 지곡리 경로당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약 600여미터 정도 가면 도로변에 접한 낮은 구릉이 있는데 유적은 이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지번은 236대, 236-1대, 산 3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7-1, 지도1·7)

(3)현상: 가마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집터와 밭이 조성되어 있어 가마유적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보인다. 다만 집터 뒤 구릉 단애면 퇴적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나, 집과 도로공사로 인하여 많이 파괴되었으며, 단애면과 지표에 다량의 파

편이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잔존한 유적의 범위는 대략 가로 15, 세로 10미터 정도이다.(사진7-2)

(4)유물: 흑자와 甕器 그리고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黑磁: 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과 호를 변형한 주자가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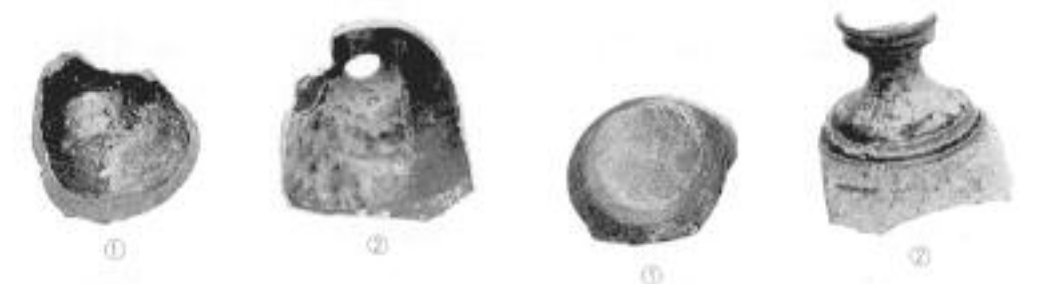
• 瓶: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7-3-①~②, 도면7-10~11): 입이 넓고 목이 細長하며, 몸통이 원통형을 이루는 형태로, 보통 廣瓶으로 불리우는 예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사선형의 어깨와 원통형의 몸체가 만나는 각이진 부분에 폭이 넓은 음각형선과 같은 홈을 파두었다.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편평한 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은 오목굽으로, 바닥에는 시유하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없고 불투명한 黑釉를 내외면에 모두 씌웠으나, 외면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壺: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7-4-②, 도면7-2): 구연은 도톰하며 직립 외반하고 어깨가 사선을 그리는 형태로, 몸체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내외면에 광택이 있고 불투명한 흑유를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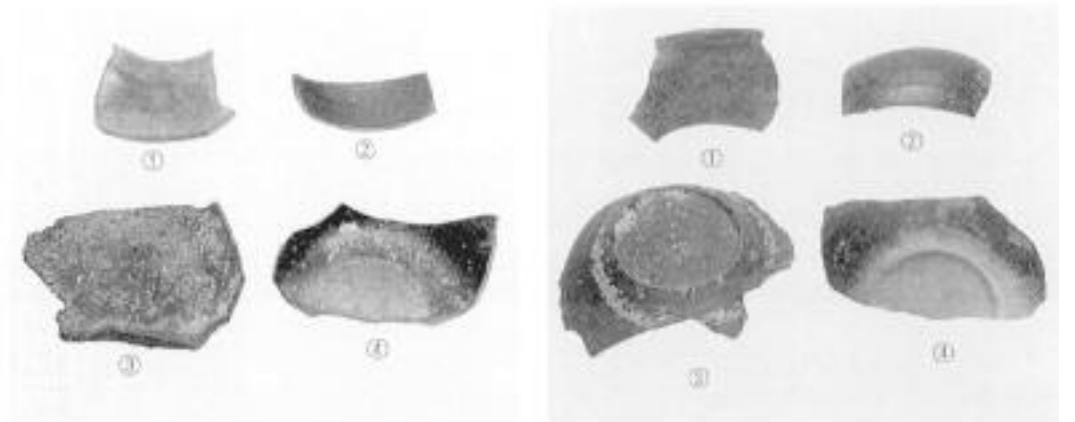
②(사진7-4-③, 도면7-3): 구연이 직립 내경하며 어깨와 몸체의 상부가 곡면을 그리며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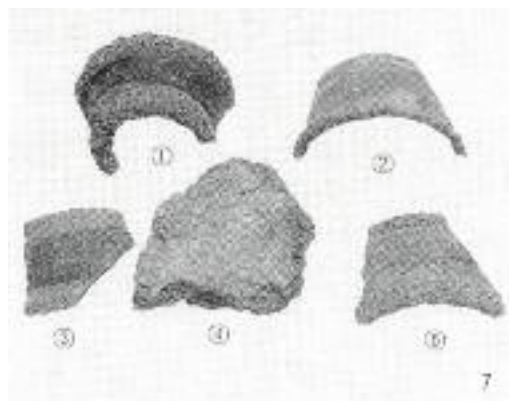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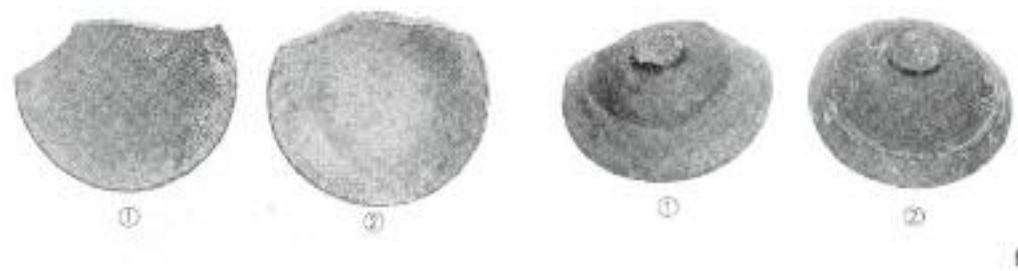


5



1

2



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광택이 저고 불투명한 흑유를 씌웠으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아 태토의 색깔이 비취보이기도 한다.

• 注子: 한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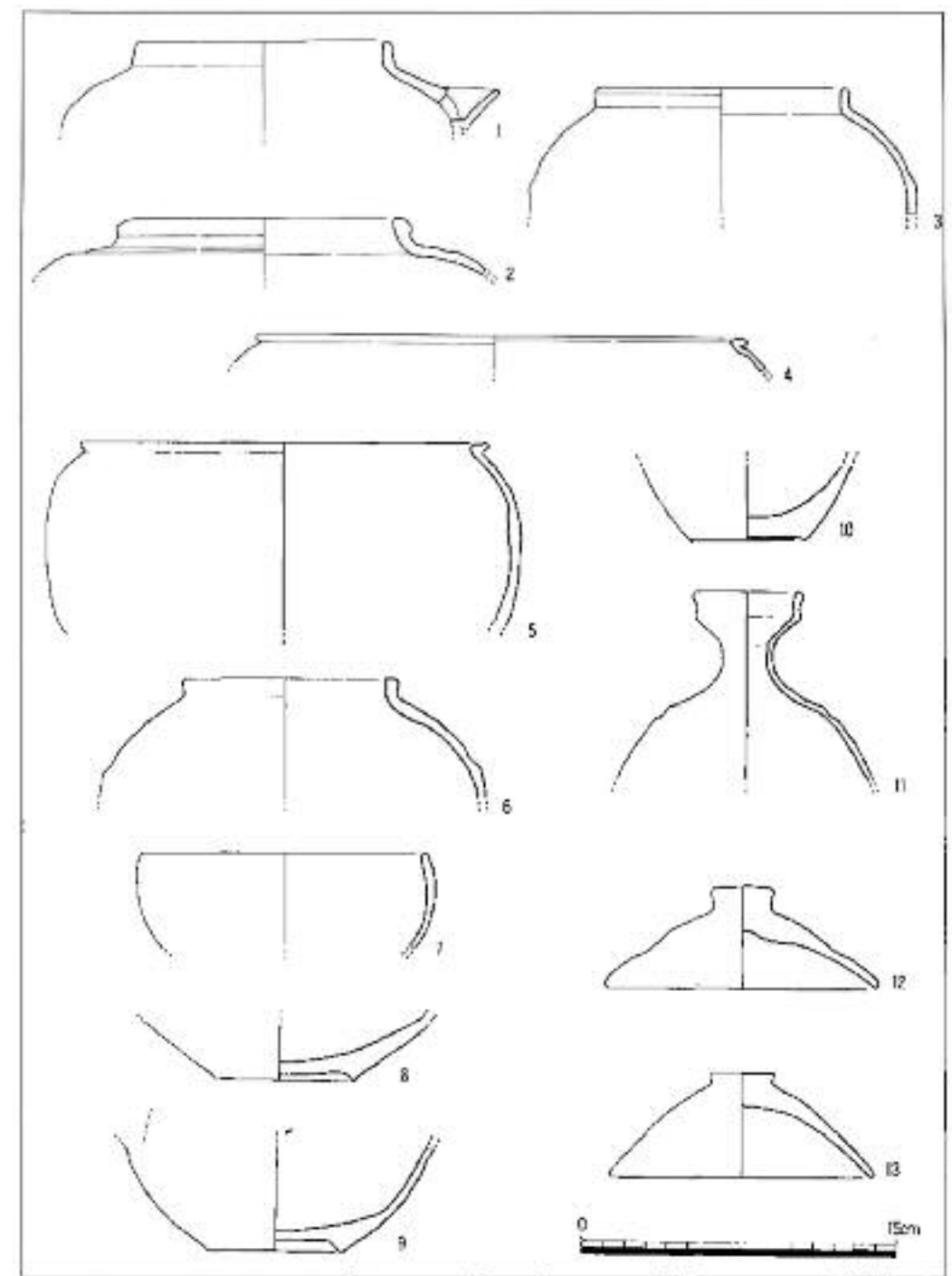
①(사진7-4-①, 도면7-1): 구연이 직립외반하고 몸체의 상부가 호를 그리는 형태로, 몸체 중앙에 짧막한 사선형의 주구를 달아 주자로 만든 것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내외면에 광택이 있고 불투명한 흑유를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나.甕器: 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커다란 뚜껑도 수습되었다.

• 壺: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7-4-④~⑤·5-①·③, 도면7-4~6·8): 구연은 도톰하며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입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크다. 굽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없는 밤갈색의 유가 얇게 씌워졌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7-5-②·④, 도면7-7·9): 구연이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히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크다. 굽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아낸



도면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뚜껑: 여러점의 뚜껑이 확인 되었으나,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①(사진7-6-①~②, 도면7-12·13): 반구를 얹어놓은 듯한 형태로, 윗면 중앙에는 원반형의 꼭지가 달려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없다. 뚜껑 윗면에는 모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안바닥에도 모두 모래받침의 흔적이 넓게 퍼져 있어, 번조시 요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窯道具: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陶枕: 모두 원통형으로 크기만 조금을 다르다.

①(사진7-7-①~③·⑤): 대체적으로 속이 빈 원통형이지만, 위쪽보다 아래쪽의 직경을 크게 하여, 번조시 안정감이 생기게 하였다. 점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과 아래면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라.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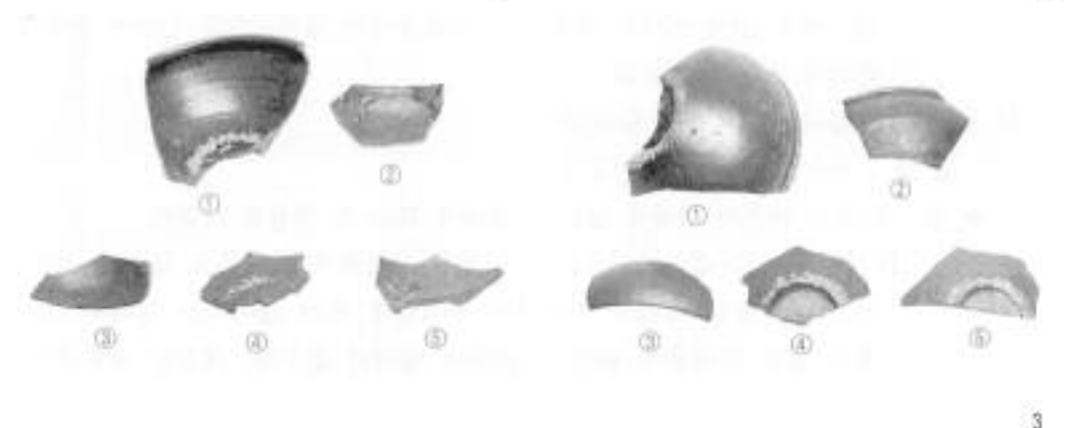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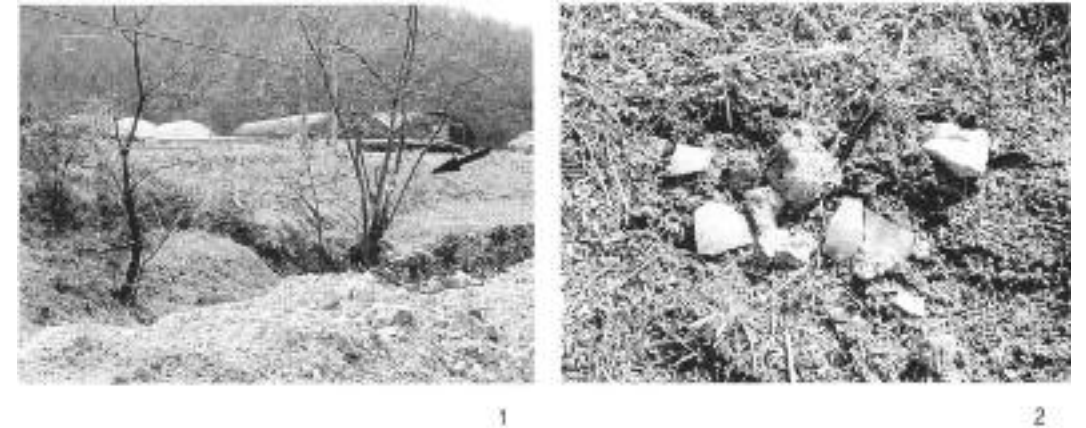
①(사진7-7-④):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과 점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2) 芝谷里 2호 요지

(1)성격: 朝鮮19世紀 末 甕器窯址

(2)위치: 지곡리 경로당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약 1000 미터 올라오면 지곡저수지와 사기막골로 갈라지는 두갈래 길이 나온다. 여기서 사기막골 쪽으로 약 800여 미터 도로를 따라가면 우측 개울 건너편에 집 한채와 비닐하우스 2동이 있는 곳에 위치한다. 주변은 산 160-5전, 160-6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8-1, 지도1 • 8)

(3)현상: 고추를심었던 커다란밭의 가장자리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며, 정확한 퇴적도 확인하기 어렵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0, 세로 10여 미터로 추정되며, 수로공사와 밭개간으로 인하여 많이 파손되어 있다.(사진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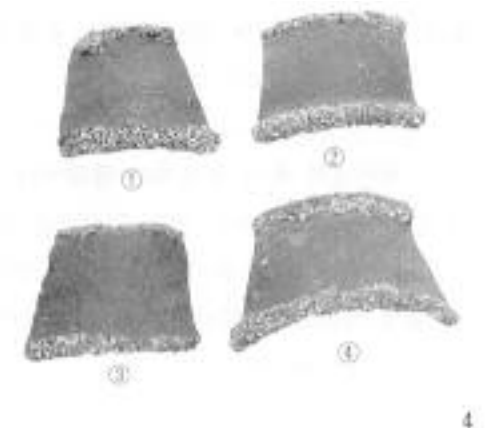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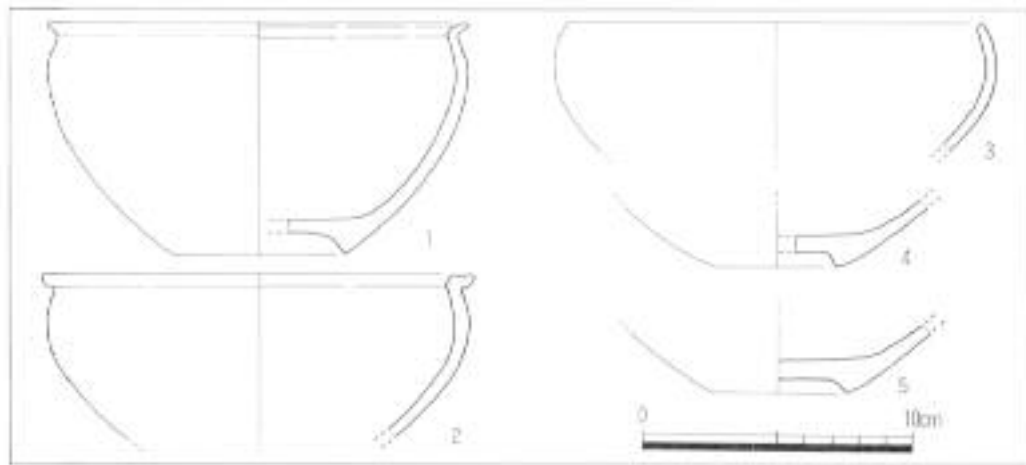
(4) 유물: 甕器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甕器: 작은 호가 주류를 이룬다.

• 壺: 다수의 파편이 산재해 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8-3 | 2~②, 도면8-1): 구연이 도톰하며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입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좁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가 얇게 씌워졌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예리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





도면 8. 기층읍 치곡리 2호 요지

②(사진8-3"②~⑤, 도면8-3~5): 구연이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나. 窯道具: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陶枕: 모두 원통형이며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8-4-①~④): 대체적으로 속이 빈 원통형이지만, 위쪽보다 아래쪽의 직경을 크게 하여 번조시 안정감이 생기게 하였다. 점토질의 재료로 제작 되었으며, 윗면과 아래면에는 굽은 모래가 붙어 있다.

3) 芝谷里 3호 요지

(1) 성격: 朝鮮17世紀 白磁窯址

(2) 위치: 치곡리 사기막골에 위치한 치곡리 2호 요지에서 200 미터 떨어진 남측 구릉 쪽에 휴양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약 150미터 정도 가면



1

2



3



4

개울이 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밭과 구릉의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산 28-10임 일대에 해당한다.(사진9-1, 지도1-8)

(3)현상: 휴양소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갈래로 갈라지는 개울이 나온다. 이 사이에 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기 파편들이 여기저기 산포되어 있다. 밭 서쪽에 접한 개울과 구릉사이에 가마벽편과 백자 파편들이 집중 퇴적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10, 세로 10여 미터로 추정된다.(사진9-2)

(4)유물: 다수의 白磁파편과 窯道具,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白磁: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띠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大栳: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①(사진9-3-①~②, 도면9-1-2): 구연의 파손되었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그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모두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栳匙: 형태와 세부의 특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9-3-③・⑤, 도면9-4):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거의 수평에 가까우며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일부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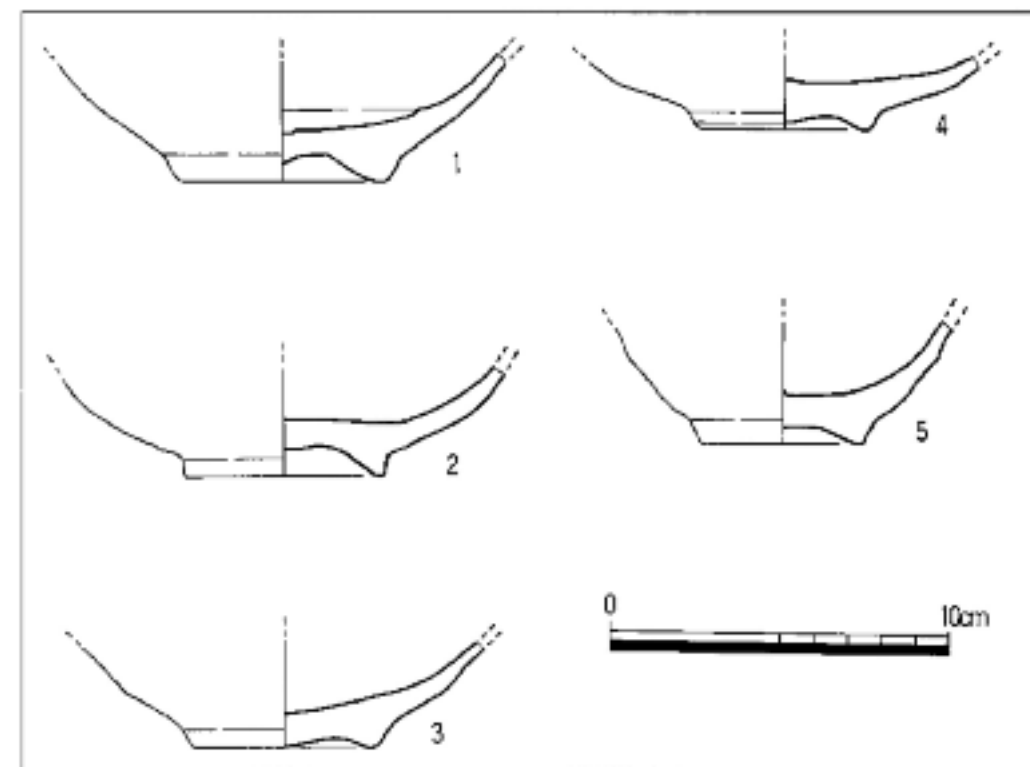
•盞: 한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9-3-②, 도면9-5):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오목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암회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窯道具: 두 종류가 수습되었다.

•陶枕: 한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9-4-①): 나팔모양으로 윗면의 직경이 아래면보다 크며,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물레로 제작한 후 표면과 바닥을 다듬지 않아 거칠고 지저분하다. 미세한 잡물이 섞인 태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바닥에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9. 기층읍 지곡리 3호 요지

•개떡: 크기가조금씩 다를뿐모두동일한형태이다.

①(사진9-4-②):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다.其他

•가마벽

①(사진9-4-③):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곳곳에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면에는 백토를 얇게 발랐으며,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던 교량건설 사업에 나선 주민들.

4

생애 구슬을 통해 본 마을과 삶

- 4-1 여성의 삶 226
- 4-2 집성촌 지곡동의 삶 236
| 청주 한씨 | 제주 고씨 |
| 밀양 박씨 | 청풍 곽씨 |
- 4-3 원로에게 듣는 지곡동과 삶 247

4-1. 여성의 삶

김경희

김경희 할머니는 이동면 천리에서 태어나 17세인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지곡동으로 시집왔다. 보통 동네 며느리들이 트럭이나 택시를 타고 시집왔지만 김경희 할머니는 가마를 타고 왔다. 2시간이면 오는 짧은 거리였다. 올해 89세가 됐으니 이 동네에서 72년을 살았다. 당시는 일본군이 위안부 시킨다고 끌고 갔기 때문에 다들 일찍 시집들을 보냈다. 농사짓던 부모 밑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시집오기 전에 밥하고 빨래하면서 안살림을 배웠다.

시집은 식구가 단출 해 홀시어머니에 5세 연상인 남편 채홍석과 시아주버니, 손위시누 등 3남매였으나 형제들은 다들 시집 장가가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는 자신까지 포함해 단 3명이었다. 논 댕마지기와 밭도 해먹었는데 밭에는 콩 수수 고구마 등 별 것 별 것 다 심었다. 쌀이 많이 안 나와서 남의 땅도 해먹었지만 밥은 굶지 않았다.

비료가 없고, 짚으로 지붕 잇고 소먹이로 쓰느라 논에 밑바닥 거름이 없었기 때문에 거름 없는 논에 간신히 농사져서 보리대고, 쌀 대고 그리 살았다. 돼지는 안 기르고 소만



길렀다. 모두 8남매를 낳았는데 2명이 잘못돼 6남매를 키웠다. 첫 애는 20세에 낳았다. 시어머니가 산파를 했다. 옛날엔 미역도 귀했지만 미역국은 실컷 먹었다. 아이가 체하면 엿기름이나 해먹이고 들기름을 끓여 먹였을 뿐 다른 손쓸 방도는 없었다.

지금이야 길이 나고 자동차가 썩썩 달리지만 당시 동네는 산속 마을이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어려웠다. 동네에 좁은 마차길이 하나 있었고 차라고는 없었다. 집에서 신갈은 10리, 수원은 30리, 용인은 20리를 걸어 다녀야 했다. 그래서 김경희 할머니는 장 보러도 안다녔다. 남편이 다녔다. 돈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나가서 바꿔왔다. 6남매 중 3명은 신갈초등학교까지밖에는 못 가르쳤고, 3명은 고등학교까지 보냈다. 6.25때는 폭격으로 집이 탔다. 동네에 중공군이 들어와서 20일 정도를 살았는데, 말을 타고 들어온 중공군들은 낮에는 굴로 들어가서 숨고 밤이면 쥐새끼처럼 나와서 밥을 해 먹었다. 까마귀 떼 같이 엄청 많았던 중공군을 미군이 들어와서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것을 동네 사람들과 봤다.

김경희 할머니는 빨래를 할 때면 하루 종일 했다. 겨울에는 집 앞 개울물이 얼어 빨래방망이로 깨고 빨래를 했는데, 이것을 집으로 가져와 삶아서 다시 가져나가 빨래방망이로 쳐서 행귀다 널다보면 하루해가 다 갔다. 옛날에는 겨울이 무척 추워 솜저고리를 바

느질을 해서 입었다. 김정희 할머니는 말하는 중간 중간에 그런 세상이 또 돌아올까 무섭다고 말했다. 우리네 인생이 산 것이냐고 물었다.

반찬은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기르던 채소를 한웅큼 뽑아다 해먹는 게 고작이었다. 늙은 오이생채, 오이지 그게 반찬이었다. 요즘은 많아도 안 먹지만 당시는 먹을 게 없었다. 당시 결혼은 부모가 맺어준 것이니 얼굴이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그때는 요즘과 달리 이혼을 하면 흉을 봤다. 여자는 일부종사 해야지 이부종사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시절 사회의 통념이었다. 이혼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여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을 하면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그건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은 고구마 싹을 티워 봄에 팔아먹는 게 일이었다. 가을에 캐서 방에 저장해 뒀다가 봄에 흙에 묻어 싹이 나오면 잘라다가 수원에 있는 상회에 내다 팔았다. 이때 집집마다 돈이 생겼다.

고구마를 캐다가 방에 모셔뒀다. 뒷목에 수수깁을 둥그렇게 통발같이 엮어 만든 밭을 쳐서 거기다 보관했다. 고구마는 많이 켜다. 돈이 생기면 시장에 가서 성냥, 비누, 실, 바늘, 물감, 광목을 샀다. 물감은 옷감에 물을 들이기 위한 것인데, 보통은 검정색 물감을 많이 샀다. 옷감은 집에 방물장수가 와서 곡식을 내주고 샀다. 인조나 광목 같은 천을 사서 딸들에게 분홍저고리를 만들어 입혔다. 그렇게 만들어 입히면 예뻐다. 봄에 만들어 입힌 옷은 자꾸 빨아 입히면 하얗게 색이 바랬다. 나이가 오십 살이 넘어서는 살만해져서 바느질도 안하고 산 것 같다. 60살부터는 여행을 다녔다.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중국도 두 번이나 다녀왔다. 홍도, 울릉도, 거문도, 백도 같은 섬도 다 다녔다. 여행은 동네에서 단체로 다녔다.

지금 89세의 나이지만 위염이 있는 것만 빼고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 교회를 다닌지 9년 됐는데 맘이 편하고 설교 소리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좋아진다. 비교적 험프다, 알뜰 하라는 시어머니 잔소리 정도밖에는 큰 시집살이가 없었고 시집 식구들이 적어 뒷바라지 하는 고된 집안일도 없이 평탄한 삶을 이어온 편이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 속에서 6남매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으며 김정희 할머니는 아들네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정양순

의령 남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억척스럽게 자수성가를 이뤄내고 자식들도 모두 공부를 시켜 사회적으로 성공시킨 정양순 할머니(80). 그녀는 1937년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6남매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났다. 7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세 때 해방이 됐으니 격동의 나라 사정만큼이나 정양순의 어린 시절도 격랑이 컸다. 18세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서 늘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쓸쓸하게 성장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5세 때 어머니 따라서 배급 타러 갔다가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유일하다. 10리도 넘는 길이어서 아이는 걷기 힘들다고 따라오지 말라는 것을 굳이 따라가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손을 잡고 갔다가 배급소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5살배기가 어머니를 잃었으니 어머니는 혼비백산 했을 터였다.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10리가 넘는 산길을 걸어야 했으니 당연히 집에서는 딸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다. 산이 험해 어른도 혼자서 넘기 무서워하는 굽이굽이 험한 열두 고개였다. 그런데 정양순은 혼자서 그 고개를 찾아내 동네에 도착해서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개울너머에서 장난을 놀았다.

한참을 혼자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 자신을 찾느라 집안이 발각 뒤집혀 있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충기가 뛰어났던 정양순은 20세 차이가 나는 큰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다가 성장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서울 수양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재봉틀과 저고리 만들기 등 바느질을 배웠다. 큰 일이 있을 때는 노인들 틈에 들어앉아서 바느질을 했지 부엌에는 안 들어갈 정도로 영리하고 손재주도 좋았다.

언니가 한국민속촌 근처 보라리에 시집와서 살고 있었는데 정양순이 23세 되던 해에 중매로 혼인을 시켰다. 언니는 의령남씨 양반댁이라고 시집을 가라고 했다. 언니 집에서 남편 남만희와 구식 혼례를 치르고 그날로 택시를 불러 타고 시댁으로 들어왔다. 당시에는 보통 트럭을 타고 시집을 오던 때였는데 정양순은 택시를 불렀다. 시집을 오니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5살배기 어린 시동생까지 시동생 8남매, 정양순 부부까지 합쳐 모두 13식구였다. 정양순은 시집온 바로 그 터에 집만 새로 짓고 지금까지 한 밭작도 안 옮기고 살고 있다.

시댁은 농사를 지었는데 소유한 논과 밭이 있었어도 가족이 많은 터라 무척 가난했다. 시향답까지 얻어서 해먹었는데도 늘 양식이 모자라서 장리쌀을 얻어다 김치와 장아찌를 넣어 죽을 끓여 먹어야 했다.

정양순은 역세게 일했다. 돼지를 기르고 이반소도 길러서 땅을 샀다. 돼지도 영양 부족으로 중풍 맞듯 땅 서리 맞아 쓰러질 정도였다. 정양순은 웅덩이마다 찾아다니면서 개구리와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돼지에게 먹였다. 시집온 이듬해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애 낳고 양식이 없어서 밥도 못 먹었다. 통감자만 삶아 놓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허리띠가 양식이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옆구리 뼈가 아파서 땀 수가 없었다.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다. 물이라도 먹어야 살겠어서 물을 마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찌 살았나 싶다. 정양순은 기막힌 설움은 배고픈 설움이라고 했다.

정양순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시집오기 전에 동네에 여자야학이 있었는데 석유 한 등잔씩 자신의 책상에 놓고 공부해야 했다. 석유 한 등잔이 없어서 며칠 나가다가 그만뒀다. 당시에 정양순 또래의 있는 집 딸들은 한문공부를 가르쳤고 초등학교도 보냈다. 정양순은 그때 배우기만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못 배운 자신과 달리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중매쟁이의 말을 들었다. 먹고 살 만한 집이라고 생각했다. 또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대학까지 중퇴한 사람

이라 시골에 묻혀 살지 않고 어딘가 취직을 해서 단란하게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양순은 자신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사람이라도 똑똑해야 문서라도 보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혼인의 조건을 남편의 배움 하나만 봤다.

그러나 막상 시집을 와보니 오막살이에 작은 농작도 문에 들어가지 않아 문틀을 자르고 들어놔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살림이었다. 시집 온 정양순은 남편과 함께 성실히 농사를 지었다. 고구마를 캐서 보관했다가 봄에 싹을 길러 팔았는데, 그것이 수입원이 됐다. 동네 사람들도 고구마 싹으로 가난을 면할 수 있었다.

정양순은 워낙 절약을 했기 때문에 가난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한 때 방물장수의 껌에 시어머니가 넘어가 쌀 두 서 말 퍼주면서 자꾸 싸구려 옷을 사들였다. 정양순은 방물장수한테 시부모가 산 것이지 내가 산 게 아니니 쌀을 못준다고 기를 꺾었다. 그 후 화가 난 방물장수가 밭길을 끊고 다신 정양순 집에 찾아오지 않았을 정도다.

자식은 5남매를 낳았다. 나눠줄 재산이 없으니 머리에 식자를 넣어주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밥은 굶더라도 가르침은 멈추지 않았다. 자식 같은 어린 시동생들도 가르치고 모두 결혼 시켰다. 소 키운 돈으로 땅을 사서 큰일들을 치를 수 있었다.

정양순은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물동이를 이었다. 아기 낳는 날이나 들어앉았다. 온 몸이 안 아픈 곳 없이 여기저기 다 아팠는데, 막내를 한 겨울에 낳고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푹 했더니 그때 많이 가라앉았다.

용인에 나갈 때는 수여선 다니던 철길 난간으로 걸어가 개울을 건너는 샛길을 통해 시어머니 약도 사고, 사료도 사다가 닭을 키우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정양순한테서 버릴 것은 통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며느리를 믿고 의지했다. 시할머니, 시부모, 시동생들 밥상 나르는 일도 안 시켰다. 밥을 퍼서 밥그릇을 솥에 넣어두고 알아서 가져다 먹도록 하라고 시켰다. 정양순은 숭늉 한 톨도 남기는 일이 없이 먹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아끼고 고생하며 살았는지는 아는 사람만 안다. 새마을운동으로 정양순 집 농토의 일부도 도로에 들어가 동네에 버스가 다니게 됐는데 처음 시집왔을 때는 마차도 못 다니던 길이었다. 석유도 못키고 광술이나 기름 불 켜고 살던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면서 점차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듯 정양순씨네 형편도 점점 나아져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이룬 가운데 두 부부는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



이원훈

이원훈 할머니(78)는 화성군 남양 농가에서 1941년 9남매 중 5째로 태났다. 23세에 친정집 마당에서 이관구와 구식 혼례를 치른 후 다음날 트럭을 타고 용인 지곡리 시택으로 들어와 현재까지 55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시택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셋, 시동생 셋이 살고 있었으니 아기를 낳기 전 이원훈 부부까지 모두 열한명이 살았다. 지금은 집 옆으로 길이 나서 자동차가 수없이 달리지만, 시집을 때는 동네에 전기도 없었고 산만 뽕뽕 둘러쳐져 있어서 하늘만 보이는 엄청난 산골이었다. 친정집 근처 갈매 방골 고개를 넘어 걸어가다가 종아리에 알이 배서 친정집에서 3일 동안 앓다가만 왔다. 장은 용인시장과 수원 영동시장을 이용했다. 용인시장은 현재 영진골프랜드 방향으로 삼가동까지 걸어 나가 버스를 탔다. 채소는 집에서 재배하니 보통 고기거리를 사러 갔

다. 무거운 술을 사서 들고 올 때 무척 힘들었다. 옷은 방골 고개를 걸어 넘어 수원 영동 시장에서 사왔다.

시택은 당시 밭 1000평과 논 30마지기를 농사 지어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시집 오던 해에는 흉년이 들어 1년을 보리쌀로 연명해야 했다. 저녁에 보리쌀을 한자배기 뽕뽕 닦아 삶아 뉘다가 아침에 쌀 한 되를 더 넣어 보리쌀밥을 해서 시부모 것과 아기 것을 쌀 쪽으로 먼저 뜨고 나머지 식구는 보리밥만 먹었다. 저녁에는 김치 찢어 넣고 쌀 한 되 넣어 멸정게 죽을 썼는데 두 그릇씩 먹는 것도 모자라 더 먹으려고 야단들이었다. 메밀로 끓인 칼삭죽은 맛있고 구수한 음식이었다.

시부모는 농사일을 하고 이원훈은 시집와서 밥하고 빨래하는 안살림을 도맡았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 녹초가 됐다. 아궁이에 불 때서 밥하고 개울에 나가 대가족 옷을 빨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원훈이 들일 안하고 수월한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해 동네에서 바느질거리를 한보따리씩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바느질삿 대신 사람을 데려다가 농사일을 시켰다.

이원훈은 시부모 바지저고리며 남의 집 두루마기, 바지저고리까지 만드니 더욱더 쉴 틈이 없었다. 그 때 둘째 시누가 많이 도와줬다.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 했던 시누이는 바느질만 가르쳐주면 밥은 자신이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이원훈은 경우 상 안되는 것이라며 밥하는 것도 같이하고, 바느질도 같이했다.

동네가 모내기철에는 성남에서 일꾼을 얻어다가 썼다. 이때 이원훈 사랑방에도 열 명 정도의 일꾼이 숙식을 했다. 집집마다 동시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품앗이가 어려웠다. 이원훈은 일꾼 이부자리까지 빨고, 밥해 먹이고, 새참 내가느라 고생이 컸다. 하루에 한 사람이 100평을 심기가 어려웠으니 일꾼들은 며칠씩 머물다 갔다.

시집오던 해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주로 막걸리를 쓰기에 그 다음해에는 누룩을 사다가 직접 술을 만들어서 올리니 시아버지가 양반집 자식을 데려온 게 확실히 다르다며 좋아하셨다. 시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딸만 내리 셋을 낳다보니 구박도 받았다. 은근히 시부모가 미워했다. 그러나 넷째를 아들을 낳으니 모든 게 다 덮이고, 시부모가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다.

셋째 딸을 낳던 정월, 시부모가 농사일을 이원훈 부부에게 넘기고 시동생들 교육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 가는 날이었다. 이원훈이 출산기가 있어 남편을 남게 해달라고 시부모



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삿짐 날라야한다며 매정하게 남편을 데리고 수원으로 가버려 이웃 집 아줌마를 불러다가 아기를 낳아야 했다.

시아버지는 손자만 챙겼는데, 이원훈은 애 버릇 나빠진다고 만류했다. 그러나 아들 심성이 워낙 착하고 우애가 깊어 시아버지가 숨겨 놨다 혼자 먹으라고 몰래 준 사과를 네 쪽으로 잘라 누나들과 나눠 먹었다. 딸들이 직장생활 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사드리니 자식보다 낫다고 좋아했다. 네 명의 자식까지 낳고 시동생 혼례 등을 치르니 자식 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두 부부는 이웃집 젓소 농장에서 밭일 품을 팔았다. 이원훈은 품삯대신 어린 젓소를 요구해서 키워 젓을 짜서 팔아 교육비에 보탬다. 1980년대 초에 젓 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젓소 몇 마리를 남기고 나머지를 황소로 바꿔 키웠는데, 어느 날 화성 우시장에서 새로 사온 송아지 다섯 마리를 몽땅 도둑맞았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다. 당시 소 값이 비싸서 소도둑이 많았다. 이원훈은 몇 개의 경찰서를 경유해 이천 산골짜기에서 잃었던 소를 몽땅 찾아냈다. 이원훈은 찾은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아서 고생한 경찰서에 사례를 했을 정도로 통이 컸다. 이원훈 덕에 같은 도둑에게 소를 잃었던 동네사람들도 소를 찾게 됐다.

수원에 나가 사는 노인들 보살피고 소 키우고 농사짓느라 일이 많은데 부녀회장으로 뽑혔다. 읍장이 황소같이 일하시는 부녀회장님 나왔다고 하면 당시 모여 있던 회원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3년 동안 부녀회장을 보는데 착실하게 잘한다고 읍장, 신갈농협 조합장이 표창장을 잇달아 수여했다. 그때 부상으로 받은 벽걸이 시계는 지금까지 쓴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3년 만에 부녀회장을 그만두고 시부모 봉양을 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치매가 왔다. 시어머니가 넘어뜨린 텔레비전을 세우려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누와 아들 며느리네 집에서 시어머니를 잠시 모셨지만 이원훈은 내가 죄인이라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나와 다시 모셔다가 똥오줌 다 받아내며 모셨다.

호적이 늦어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막내 시동생이 학교 보내달라고 날마다 심술을 부렸다. 이원훈은 학교에 찾아가 시동생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시동생이 환갑잔치 때 형수를 위한 시를 지어 읽으면서 울었다. 한때 도



둑 누명을 쓴 시아버지일도 해결해줬다. 누명 씌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자초지충을 따져나가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남편 이관구는 술을 좋아해서 소를 먹이다가도 싫으면 술 잡수러 나가고 서천리 농악대도 나갔다. 시아버지는 상쇠였고 남편은 상모를 돌렸는데 용인에서 하는 농악대회에 나가 송아지도 타왔다.

이원훈은 친정 아버지가 네가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딸 된 게 아쉽다고 했을 정도로 충명했다. 시부모 모두 돌아가신 후 지곡2리 반장을 8년 봤고 지금은 기흥농협 대의원이다. 평생 경우 빠지는 짓은 안하며 살았다는 이원훈은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혜가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 박숙현

4-2. 집성촌 지곡동의 삶

제주고씨 고향부

외지에서 번 돈으로 지곡동에 터를 일구다

출생과 어린 시절

고광부씨는 1943년 4녀4남중 셋째로 '한국민속촌'에서 태어났다. 6살 때 할아버지가 분가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지곡동 하동으로 이사왔다. 당시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 신갈국민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영리한 조카가 큰 도시에서 공부하길 바랐던 막내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여주의 표결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부모님이 방앗간을 운영하여 어린 시절엔 나름 부유하게 자랐다. 하지만 6.25전쟁 중 신갈에 주둔했던 중공군의 버를 쪼갰던 일로 주민들에게 매를 맞아 아버지는 44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이 일을 계기로 12살에 다시 지곡동으로 돌아왔다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



사전면담 중 부부

첫째형은 어려서 죽고 둘째형도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 역시 허약하여 농사와 집안일은 거의 고광부씨가 도맡다시피 했다. 방앗간운영도 하고 일꾼을 구해 농사도 지었지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능한 혼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 땅도 사고 동생들 공부를 시켰다.

군대생활과 인연

1964년 22살에 군대를 갔다. 1966년 제대특명을 받았지만 장기복무를 신청해 월남에 갔다. 제대 말년 월급이 3천 원가량 이었는데 파병을 가면 7천 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맹호부대 경비대로 배치되었고 육군중사로 진급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휴가를 나올 정도로 군대 생활을 잘했다. 하지만 사이공시내에 침투하여 백마 청룡 맹호 비둘기부대에 부식수송을 하던 중 인명사고가 나 2계급 강등되어 1968년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다.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형이 재산을 탕진해 고향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서울의 누님 댁에 있는데 한국부대 생활 중 만났던 소대장으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그는 이북출신으로 군대서도 고광부씨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는데 월남에서 돌아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것이다. 소대장은 양계장이 있던 자리에 공장을 짓고 섬유를 생산하고 옷을 만들었다. 고광부씨는 당시 집도 절도 없는 상태였기에 공장숙소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한번 쉬는 휴일에도 출근하며 열심히 일

했다고 한다. 섬유사업은 번창하여 공장이 세 개로 늘어났고 고광부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면목동공장의 지사장으로 승진했다.

결혼은 27살 때 월남파병 때 만난 큰 처남의 소개로 하게 되었다. 서울 굴레방다리의 조그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사장님이 내어준 승용차를 타고 남산 북악스카이를 돌아 지곡동 부모님산소에 갔다. 그게 신혼여행이었고 이후 서울 4대문 안에 안살아본 데가 없을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한다.

29살에 독립하여 성남에 섬유공장을 차렸다. 경험을 바탕으로 실을 생산하고 옷을 만들었다. 경비절감을 위해 경리도 두지 않고 밤새워가며 40~50명의 월급을 정산하고 버는 대로 저금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20년간량을 성남에서 살았다.

귀향과 현재생활

고광부씨는 49살에 고향인 지곡동으로 돌아왔다. 섬유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할 수 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한다. 성남에 살 때도 지곡동의 도로포장과 상동과 하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찬조할 정도로 그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낙시터를 운영하다 지금은 둘째아들과 '송골농장'이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이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돈 있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고향이니까, 아버지산소가 여기 있고, 우리 형은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문중 회장하라는데 안 해요. 젊은 사람들 모여서 하라고 그러고. 한 70명씩 모여요, 우리 고씨네들이. 음력 7월 보름날이 별초하는 날이에요, 산소 깎는 거. 민들레 찻집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봐요. 여기저기 있던 산소를 한곳에 다 모으고 문중모임도 내가 만든 사람이에요.”

“난 다른데 간다면 가기 싫고 고향에 오고 싶어요.”

지곡동에 거주하는 제주 고씨는 70~80년대 8가구였지만 현재는 고광부씨 외에 광덕씨 광식씨 광호씨 네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현풍곽씨 곽용길

고고조모의 걸음이 인도한 터

출생과 어린 시절

곽용길씨는 1939년 5남1녀 중 장남으로 지곡동에서 태어났다. 7살 때 부모님은 동생 둘만 데리고 서울로 가셨다. 취학연령이었던 곽용길씨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들과 함께 지곡동에 남았다. 빙수공장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을 지곡동으로 보내고 혼자 서울에 남았다. 남은 사업을 정리하던 중 후퇴하는 북한군에게 잡혀 수종의 돈을 모두 내주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이후 서울 쪽으로 오죽도 누기 싫다며 고향땅을 떠나지 않으셨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농사일에 관심이 없으셨고 손님이 오면 사랑방에서 담소하며 세월을 보내셨다. 어머니는 가마짜기 경진대회에 나가 1등을 하실 정도로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였다.



최근모습

지곡동에 살게 된 계기

중2때 큰집할머니에게 현풍곽씨가 어떻게 지곡동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큰집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고고조 할머니께서 전라도 강진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들이나를 낳고 혼자가 되셨다고 한다. 친정 가까이 살고 싶어 아들을 데리고 낮에는 걷고 밤에는 산에서 자며 친정인 이동면 서리 덕골로 갔다. 친정에 살다가 아들이 장성하여 2남 1녀를 낳았는데 딸은 당진 쪽으로 시집을 가고, 아들 중 한명은 지금의 명지대학교 위인

동진리 덕골에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명은 지곡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손이 퍼져 한때는 7~8가구가 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두가구가 살고 있다. 70~80년대 현풍 광씨들은 생활도 나름 여유로웠고 의리 좋기로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90년대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한 아우회

진학에 대한 갈망

곽용길씨의 학교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기흥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한문서당을 1년 2개월 정도 다니다 수원의 공군학교를 다녔다. 공군학교는 허름한 공장 터에 세워진 비인가학교로 비전이 보이지 않아 몇 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다. 다행히 용인경찰서에 다니는 당숙이 부모님께 ‘애들은 집에서 놀리면 안된다’고 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태성중학교를 졸업하고 태성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버지는 자식보다 본인위주의 생활을 하셨기에 입학금은 어머니가 힘들게 마련해 주셨다. 하지만 결국 학비를 내지 못해 몇 개월 만에 태성고등학교 생활은 끝이 났다.

학교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곽용길씨는 양지의 비인가 학교를 거쳐 그 이듬해 용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자식의 열망을 알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학비는 꼭 마련해주셨다.

진학에 대한 갈망은 대학으로 연결되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입학금은 부모님이 땅을 팔아 힘들게 마련해주셨는데 서울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친척 댁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눈치가 보였고 학비도 벌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돈을 벌기위해 서울과 당진 합덕 수원 천안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했다.

귀향과 현재생활

천안에서 일을 하던 중 고향의 신영수씨로부터 젓소목장의 운영을 도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 도시생활에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장남의 책임감도 작용해 35살에 지곡동으로 돌아왔다. 3~4년간 젓소목장에서 일을 하다 봉급생활이 맞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농사로 부를 축적하지는 못했지만 이장을 할 때 타지에서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아 중개수수료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도 들고 골짜기에 고라니가 생겨 경작지를 줄였다. 지금은 만평 정도의 땅에 고라니가 안 뜯어 먹는 들깨를 심고 있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이장으로 활동했다. 1991년 비로 인해 파손된 회관을 다시 짓고 회관 옆 하천을 정비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했다. 수해를 입은 논은 시 지원을 받아 복구를 하기도 했다.

결혼은 27살 때 3살 아래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밀양박씨 박중희

젊어서는 마을을 위해 노후에는 아내를 위해

출생과 어린 시절

박중희씨는 1943년 밀양박씨 자주공파 77대손으로 지곡동에서 태어났다. 7~80년대에는 밀양박씨가 열댓 집이 모여 살아 주변에서 ‘박촌마을’이라 불렸다.

신갈국민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아버지는 군인지원을 위해 보급대 나가고 안 계신데 말도 통하지 않는 중공군이 집으로 와 가족들은 피난을 갔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마당에는 전선이



결혼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고 방에는 화로를 두고 뻘뻘선(군용전화선으로 윤이 나는 검은 껍질에 싸여 있고 그 속에는 가는 철사뭉음이 모여 있다.)에 불을 질러 난방을 한 흔적들이 보였다. 솜이불을 덮으면 충알이 뚫지 못한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 충소리만 나면 동생들과 함께 솜이불을 덮어썼다고 한다.



지곡1리 노인정 준공식

전쟁이 끝나 친구들은 다시 2학년으로 돌아갔지만 박중희씨는 못 먹어 체구도 작았고 어려 보였기 때문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여 초등학교를 8년 동안 다녔다. 이후 배성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월사금으로 봄엔 보리쌀, 가을엔 쌀로 각각 한말씩 내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도 낼 수 없어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앞에서 울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한다.

결혼과 마을활동

아내는 시흥에서 기아자동차에 다닐 때 장모의 소개로 만나 1968년 결혼했다. 인터뷰 내내 함께 했던 아내가 당시 기억을 들려주었다.

“그때는 허여멀건허니 잘 생겼었다. 지금 일을 해 까맣게 꺼실러서 그렇지.”

“결혼은 구식결혼을 했어. 여기서 못살아서 신희여행갈 돈이 없다는 거야. 신식 하자 했더니 신식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식결혼을 했어. 그리고 신랑이 주당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된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여기 잔치를 온 거야. 와보니 오막살이집에 쌀이 없는 거야. 먹고살게. 내 돈이 무서운 줄은 아는데 그렇게 못 사냐 그리고 그때부터 허리를 줄라매고(일을 했어). 집을 시동생 앞으로 아파트사서 시가 보냈지. 아들도 사서 보냈지. 또 집을 하나 둘 셋 넷 이거 네 채를 지은 거야. 시집와서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박중희씨는 1대 새마을지도자인 이용주씨의 뒤를 이어 1975년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첫해에 마을회관과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1976년엔 전원사업을 추진했다. 호랑불을 켜고 살았던 마을에 전기를 설치하는 데 160여만 원의 추가사업비가 발생했다. 살림형

편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돈을 걷어 재원을 마련했는데 1등급은 9천원을, 9등급은 1천원을 받았다. 1976년 5월 16일 내선공사를 하고 그 해 8월 31일 점화를 했는데 당시 재원이 없어 마을점등행사는 없었다. 이장이었던 분이 집을 짓느라 바빠 본인이 추진하여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박중희씨는 사은정 고갯길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내가 힘들게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환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이장으로, 1975년엔 새마을지도자로 그리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다시 이장으로 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일했다.

2002년엔 지곡1리 노인정을 준공했으며 2003년도엔 수도를 들여왔다. 그전엔 지하수를 먹었는데 가뭄이 들면 고지대는 물이 없어 길어다 먹을 정도였다.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으로 활동하다보니 집안일은 거의 못했지만 아내는 불평이 없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일꾼도 있었지만 건강한 아내의 지원이 있었기에 바깥활동이 가능했다.

현재생활

마을길을 넓히기 위해 성황당을 없앴는데 그 이후 동네 청년들이 죽었다. 그래서 굿도 하고 다시 장승을 깎아 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들 바빠 장승 깎을 사람이 없어 박중희씨가 이장이었을 때 상동이장과 의논하여 장승을 돌로 대체했다고 한다. 1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예전에는 열성적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참석할 수 없다. 건강했던 아내는 마을행사에도 열성적이었지만 이젠 저녁이면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저혈당쇼크가 오기도 해 혼자 있을 수 없다. 항상 옆에서 다리를 만져주어야 하고, 저혈당쇼크가 오면 사탕을 먹이거나 심하면 119를 불러 병원을 가야한다.

박중희씨는 구술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자주 움직여야 했다. 아내의 요구가 있으면 말을 끊고 항상 밝은 얼굴과 미소로 답했다. 젊은 날 마을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로서 이장으로 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일했다면 이젠 아픈 아내를 위해 바깥활동은 자제하고 항상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청주한씨 한규원

별의 성실함으로 부를 이루다



구술당일 부부



결혼식후 신랑친구들과 함께

출생과 어린 시절

한규원씨는 본관은 청주로 1948년 3남3녀 중 셋째로 '한국민속촌'에서 태어났다. '한국민속촌'안 밤골은 청주한씨 종족촌으로 '한씨촌'이라 불렸다. 대대로 학자집안이었지만 점점 가세가 기울어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

지곡동 상동으로 분가했던 부모님은 한규원씨가 7살 때 하동으로 이사를 했다. 여름이면 사은정 옆 개울에서 친구들과 고기 잡고 먹 감으며 놀았는데 그때 붕어메기 뱀장어들이 많았다고 한다.

신갈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신갈오거리에 있는 비인가 중학교인 배성중학교를 다녔다. 장남으로 태어나 가정형편도 어렵고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진학보다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삼창메리야스에 들어가 동생들 학비를 벌었다.

꿀벌처럼 일하다

1975년 고향이 남원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하며 금반지 3돈을 해줬는데 그 이듬해 막내 남동생의 대학등록금이 없어 아내의 결혼반지를 팔았을 정도로 가정형편은 어려웠다. 부부는 깜깜할 때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벌도 키우고 방아도 찧고 버섯도 재배하는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양봉은 1973년 군 제대 후 농협에 돈을 빌려 시작했다. 2통으로 시작한 양봉은 60여통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미소와 트랙터를 운영하다보니 바쁜 시기도 겹치고 일이 많아 도저히 병행할 수 없었다. 이후 10년간 벌을 기르던 곳에 소를 키웠다. 소는 30마리로 늘어났고 1999년 그 소를 팔아 땅 330평을 매입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농협방아를 찧었다. '1년에 쌀 200가마를 굴리면 애들 공부 가르칠 수 있다'고 해 시작한 정미소였다. 그런데 1997년 여름,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정미소에만 물난리가 났다. 97년부터 3년간 물난리가 나 1999년 식당으로 세를 주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미소를 비롯해 건물 4동을 지어 이사했다. 이후에는



소를 키우던 곳

정미소가 있던 곳에 물난리가 나지 않아 원인을 알아보니 한국 민속촌의 골프장 공사 때문이었다.

표고농사는 1998년 이동면에 사는 사람의 권유로 시작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끌어 오고 하루 종일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웠다. 버섯을 팔 때는 상품성을 위해 해보다 먼저 일어나야했다. 버섯이 피기 전 수확을 하려고 새벽 3시쯤에 일어나 조금이라도 기다렸다가 사물이 분간되면 일하러 나갔다. 잘될 때는 1년에 순이익이 7천만원 정도였다. 표고농사로 큰돈은 벌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도 표고농사였다고 한다.

한규원씨는 어린 시절 잠깐의 직장생활과 군대를 제외하고는 지곡동을 떠나본 적이 없다. 20대 초반엔 마을의 심부름꾼으로서 반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새마을지도자와 동네 개발위원장을 하며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내 역시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챙기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다.

남들보다 두세 배의 일을 하다 보니 동트기 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저녁은 9시에 먹고 열이면 잠을 잤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다.

현재 생활

5~6년 전부터 방앗간수입이 줄어 다시 벌을 키우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밤 꿀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주로 아카시아 꿀이 나온다고 한다. 트랙터는 이제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방앗간은 수익성이 떨어져 2016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고구마를 많이 심어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자녀들도 분가하고 부부만이 남았다. 본인은 아니라지만 마을에서 갑부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즐겨도 충분하지만 부부의 삶은 젊은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중모임은 10월에 의정부에서 하는데 방앗간을 할 때는 한창 바쁜 시기라 매번 참석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여전히 바쁜 나날이라 매번 참석하기는 힘들지만 밤골아저씨가 중중 일을 하고 있어 소식을 전해 듣는다고 한다.

송무경



4-3. 원로에게 듣는 지곡동과 삶

지곡동 노인회, 한산이씨 종친회 이진규 회장

이진규 회장은 한산이씨 음애공 선생 14대 손으로 음애 공파의 세거지인 지곡동에서 1938년 출생하여 80 평생 살았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극을 하던 문학 소년은 1960년 군대를 다녀오고 1965년 큰매형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살피며 살았다. 마을어른들과의 화합을 생각하여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도 열심히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그는 경로의 대상이 되고 종친에 어른이 되었다.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못났기에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다하여 스스로를 곡송(曲松)이라 부르는 이 노인은 옥편과 국어사전을 옆에 끼고 여전히 책을 벗 삼아 살고 있다. 그를 통해 지곡동의 역사와 한산이씨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시나리오 쓰고 연극하던 소년

책을 좋아했으나 책이 흔치 않았다. 태성중학교를 다니던 친구 김성기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용인시내에 있는 책방에서 책을 빌려다 주곤 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다 문득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하여 시나리오를 썼다. 성기네 집 마당이 동네에서 제일 넓었기에 무대를 거기로 하고 10여 명이 밤마다 연습을 한 달 가량 했다. 여자들은 나설 수 없는 시대였기에 뒤에서 소품들을 만들어 주었다. 누가 타이틀을 준건 아니지만 감독 이진규, 의상 & 무대감독 김성기로 한 공연은 추석날 밤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수원극장에서 본걸 떠올려 막도 만들고 장도 구성하여 지금 보면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겠지만 인기가 좀 있었던가보다. 지역 유지의 주선으로 기흥초등학교의 초청 요청을 받아 교실에서 재공연을 했는데 어림잡아 100여명의 관객이 왔다.

용인에서 선두로 경로잔치를 진행한 청년회 활동

1960년대 말 용인에서 선두로 경로잔치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마을에 살다 타지(他地)로 나가게 되도 명절이면 어른들이 계신 마을에 와서 인사를 하곤 하였다. 세배뿐만 아니라 정월 초엔 **궐연**¹⁾에 가 인사 할 정도로 조상과 어른에 대한 예를 중시했던 때였기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잔치를 계획하였다. 당시 수원 살던 이현규씨가(전 문화원장) 세배하러 우리 집에 왔다가 경로잔치를 하자고 의견을 내 추진한 것이다. 쌀 10가마니를 **장리**²⁾쌀로 놓으면 환갑 이상 된 노인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약주 대접할 수 있으니 재정을 그걸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청년들이 쌀을 한 두 말씩 모아 5월에 어버이날 겸 경로잔치를 했다. 최초 목적은 동네어르신들과 이사 간 어르신들을 한데 모셔서 회포 푸는 자리의 명분을 마련하자는 거였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에 40여 분의

1) 궐연: 几筵, 죽은 사람의 영궐(靈几)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2) 장리(長利):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곡식의 절반(5할) 이상을 받는다. 봄에 쌀로 빌려 주고 가을에 갚는다.



이진규 회장 댁에 모셔진 터주신

어르신들이 무척 고마워했다. 이후 70년대 관광 붐이 불면서 찌개와 국 등 먹거리를 마련해서 관광을 다니게 되었다. 전에는 청년회장이 주관하던 것을 지금은 새마을지도자가 주관한다.

한산이씨 종친회장과 노인회 회장으로 지곡을 지키고 있는 노년의 삶

종중일은 팔자에 타고 태어났다고 본다. 총무로 20년, 부회장을 10년, 고문을 2년하고 2013년부터 회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다. 총무로 종중재산관리, 제사, 종친들과의 단합, 대외적인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일을 맡아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음애께서 사패지(賜牌)로 받아 후손에게 물려주신 지곡동의 땅이나 이는 부동산이냐 유동자산의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료를 받는다. 사패지로 지곡동의 땅을 하사 받은 후 음애의 세거지가 되어 살고 있으나 종중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산 포함해서 20여만 평이 남아있긴하다.

2018년 1월이면 노인회 회장을 한지가 만 4년이 된다. 과거 청년들은 마을의 노인을 경로하여 대우해주고 했는데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다니 마을의 축복이라 생각한다.

아프리카 격언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있다. 덴마크 속담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와라’는 말도 있고 중국의 고서엔 노마지지(老馬之智)라하여 ‘경험을 갖춘 사람의 지혜’를 높이 산다. 한산이씨 음애공 14대 손으로 음애 공파의 세거지인 지곡동에서 출생하여 80평생 살고 계신 이진규 회장의 경험을 통해 도서관과 같은 정보를 기록한다.

지곡동 이양구(李亮求)선생의 삶



선생은 1936년(丙子年) 음력 12월12일 기흥구 지곡동 297번지에서 아버지 이용규(李容珪)와 어머니 박화순(朴和順)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음애공(陰崖公)의 15대손이다.

1950년 신갈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수원북중과 수원농림고를 거쳐 1963년 기흥면 서기보로 관직에 종사하게 된다. 이후 기흥면장과 기흥읍장 그리고 1995년 용인시의원에 당선되어 내무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용인향교 감사, 음애공파 종중회장, 기흥노인대학학장, 대한노인회 기흥구 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용인향교의 전교(典校)이다.

자라면서 겪은 일은 종친들이 음애공 할아버지의 기일(忌日)이면 모두 모여 햇불을 밝히고 제사를 지내던 일과, 일본 순경과 지서장이 뒷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한다며 그 기세를 은근히 자랑하던 일과 일본 순경이 양곡수매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집집마다 서슬 퍼렇게 수색을 하고 다니면서 이웃 할아버지 댁의 나무가리 밑에서 벧가마니를 찾아내어 노인의 뺨을 때리던 일을 기억한다.

9살이 되던 해에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왔고 선생님의 문제를 즉답하여 약1.8대 1



의 경쟁을 뚫고 입학해 기뻐하던 일이 있다. 입학을 할 때도 장남이 우선이고 차남이나 여자의 경우는 미취학하여 문맹자도 상당하였다 한다. 물론 해방이후는 모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옷으로는 솜바지, 솜저고리와 무명 검정저고리를 입었고, 신발은 겨울에는 짚신, 여름에는 게다를 신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6Km 정도인데 겨울이면 눈 속에 짚신을 신고 다니다 발이 얼어 고생하였고, 현 짚신을 내버리고 맨발로 눈길을 뛰어 다니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나름 육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였다.

책과 연필을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달걀을 매일모아 12개 한 꾸러미를 묶어 주시면 그것으로 공책과 연필로 바꾼 일도 추억으로 남았다.

해방이 되던 날은 산골마을 온 주민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농악대를 급하게 만들어 몇 날을 두고 뿔과리를 치며 집집마다 돌며 지신밟기, 마당놀이, 우물고사를 하며 환호하였고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마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질서유지를 위하여 치안대(治安隊)를 조직한 청년단조직이 말을 타고 순회하던 모습이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다. 중학교 입학을 위해 아버지는 소를 사육하셨습니다, 기억으로는 큰 황소는 외양간이

꽤 잘 정도로 크고 우량종이었고, 소를 우시장에 매매하시고 학비를 마련하였다. 수원 우시장을 따라가 소를 판 뒤 영동시장 화춘옥에서 설렁탕을 사주셨는데 그맛은 합격의 기쁨과 어우러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되고 있다.

1950년 6월6일 중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려 했는데, 바로 6.25전쟁이 발발하여 일대 혼란이 온다.

일주일의 가기 전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학교 부근 육군병원에는 후송된 병사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상급 학생들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 통지를 기다리라는 말을 전했다. 학교를 뒤로 한 채 화성역에 도착하니 수여선 기차는

피난민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그 속을 간신히 헤치고 신갈역에 도착하였다. 당시 농촌에서는 6월22일경 모내기 할 충분한 비가 내려 전쟁에 아랑곳없이 모내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전쟁의 심각함도 그 전황도 모르는채 인민군을 맞았다한다.

8월경 학생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분이 박탈된다는 전갈이 도착하여 도보로

신갈리 양조장(현, 국민은행)에 마련된 임시 등록소에 갔다가 귀가하던 길에 폭격기가 역전창고에 폭격을 세 차례나 가하여 어느 집 헛간에 몸을 숨기고 떨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하여 그해 겨울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쌀 몇 말로 죽을 쑤가며 목숨을 간신히 연명하며 보냈다. 충남 현 독립기념관 부근 목천 땅에서 겨울을 보내고 귀향하여 집에 도착하니 중공군과 유엔군의 전투가 치열하여 양쪽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다행히 지곡리 상동은 폭격은 면하였다.

1951년 7월 군에 징용되신 아버지는 52년 여름에 전사하셔서 모두가 절망하였다.

대학 진학도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되지 않았고, 고교 졸업 후 가정 재건에 젊음을 불태우게 된다.

이후에 59년 병역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소 키우기와 농사일에 전념한다. 특히 소를 열심히 키워 늘려가며 논을 사고 자급자족의 기쁨을 마련하였다. 저녁마다 명심보감과 천자문을 읽어가며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후에 공무원으로 첫출발은 기흥면 산업계장이셨던 고 김학중씨의 도움으로 축탁근무를 하면서 부터였다.

근무하면서 9급 시험에 응시, 채용되어 63년 병사 담임으로 첫 담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62년 12월27일 아내 정순자(鄭順子)씨와 전통혼례를 올렸다.

80년 7월10일 45세에 기흥면장으로 발령을 받아 먼 업무 수장이 된다. 재임기간에 보라리 태양열 시범마을을 건설하였고, 85년 10월1일 기흥읍 승격과 동시에 기흥읍장에 취임한다. 이후 93년 6월30일에 명예퇴임을 하였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청렴결백한 공직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숨은 공헌을 한 사람으로 신문지상에 오르기도 하였다.

95년에는 용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용인시 발전에 일조하게 된다. 이후에 노인 봉사활동에 전력하였다. 가정은 3대에 거쳐 100년이 넘는 세월을 피나는 노력에 의해 극복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 사치와 낭비를 금하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여야 한다고 결심하며 살았다.

‘산과 물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는 뜻의 호를 짓고, 2014년 8월에《기산록》(器汕錄)이라는 자서전을 내기도 하였다.

지곡동 이헌규(李憲珪)선생의 삶



선생의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1937년 1월18일 지곡리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28세에 혼자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또한 입 하나도 덜자고 삼형제중 둘째형은 작은집에 양자로 가게 된다. 선생의 할아버지는 36년간 이장직을맡아 동네에서는 이장집으로 불렸으며, 나막신에 징을 박아 신고다니며 쌀가마를 번쩍 들어 올리는 이른바 장사였다고 한다.

1955년 수원중학교를 졸업 후 곤궁한 집안형편으로 바로 진학하지 못하고 두어해 가사에 종사하다가 수원고 1년을 거쳐 태성고등학교에 편입, 월사금을 내지못한 채 지곡리에서 삼가동 궁촌을 지나 먼거리를 통학하면서 59년 졸업하게 된다. 태성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다.

이듬해 취업(국가임용고시)을 위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학교를 찾았으나

월사금 미납으로 거절당하게 된다. 때마침 교무주임 이돈녕 선생의 배려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 합격하였고 부친 경찰전문대에 입학하였으나 5.16으로 졸업도 못하고 대전경찰서에 배치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허에 점이 있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여 서러움도 많이 겪었다고 한다.

당시 팔촌형님이 동양미싱에 근무하였는데 도움을 받아 그곳에 취업하게 된다. 항상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

내에서는 ‘이현규’하면 모두 알아줬다고 한다. 적자에서 흑자로 영업소 관리를 잘해 수원영업소 7개 지점관리 지배인으로 승진하면서 자기 사업도 병행하였으며 전자제품에도 도전하여 상당한 재력을 가지게 된다. 5년 만에 그만두었고 타 사업에 투자를 두 번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다.

다행히 형님에게 돈을 맡겨논 7마지기 반을 샀다고 한다. 등기는 본인 앞으로 내었지만, 살림 날 때는 쌀 한 톨 주지 않고 나가살아라 해서 신갈까지 나올 때 울면서 걸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다음에는 23만원을 장인에게 맡겼는데 부도 바람에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고향에 3천여 평의 땅이 있으며 농사도 짓고 있다. 고지식해서 사업실패하고 땅으로 밥 먹고 산다며 실소하였다.



지연 이현규 선생 공적비

가난의 설움을 단단히 겪은 선생이기에 신조가 생긴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번 돈의 십분의 일을, 마치 십일조 하듯이 모아 통장을 만들고 주위사람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고향에 좋은 일에 쓰자하는 결심을 하였다 한다.

그러면 ‘아무개 손자가 아무개 아들의 5대가 낮이 선다.’ 하는 마음이었다 한다.

전매청에도 근무할 때 직원에게 지급되는 담배를 노인에게 선물도 하고 마을잔치도 열고 청년회도 만들어 발전에 노력도 하여 마을에서 송덕비를 세워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상동마을 회관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원과의 인연은 송재권 원장 재임당시 1997년 2월21일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보선하게 되었는데 이 때 김영인 부원장의 후임으로 당시 동남보건대학 이사장이었던 선생을 부원장으로 추대하게 된 것으로 부터이다. 그러다가 1999년 2월28일 정기총회에서 제11대 용인문화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그로부터 임기를 수행하던 중 신병으로 2001년2월28일 중도 사임하게 된다.

재임기간이 국민의 정부 출범과 맞물려 세무감사 등으로 개혁시기에 어느 정도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술회하였고, 문화원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부실했던 제도도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재정지원도 좋지 않고 건물도 낡아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하여 애로가 많았으므로 사비로 난로와 에어컨을 들여놓기도 했다.

경력으로는 1964년 동양미성주식회사 사원경력을 거쳐 1976년 삼양전자를 설립한 후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후에 모 대기업으로 흡수된 후 신원여객이사, 유한정밀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90년부터 98년까지 동남보건대학 상임이사과 동대학 재단이사장과 신안금고 이사장을 또한 역임하였다.

한편 지향장학회 이사장과 가목장학회 이사를 맡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등 육영사업에 기여해 왔다. 선생의 삶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수성가’이다. 80대 고령에도 손수운전을 하고 있다.

지곡동 최종실(崔鍾實)선생의 삶

선생은 1949년 3월12일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서 태어났다. 현재 거주지는 지곡동 121-4번지이다. 지금도 시제나 별초할 때는 태어난 고향은 잊지않고 들르고 있다.

본관은 수성(隋城)으로, 수성은 현재 수원(水原)의 옛 이름이다. 고려시대 원종 때 문과에 급제, 명망이 높았던 최영규(崔永奎)를 시조로 한다고 하며 묘소는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어천리에 있다고 전하였다.

부인과 사이에 2남1녀를 두었고, 모두 성장하여 결혼 후 분가하여 근거리에서 살고 있다. 지곡동(상동)에 청림조경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인력을 동원하여 주로 골프장 잔디 나무관리와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다수의 근로자에 연 매출액도 억대에 이른다.

그는 고향에서 빈농의 후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후, 일찍 생활전선에 투신하였다.

그러다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광주에서 지내며 74년 지금의 아내와 연애, 결혼 후 서울로 이주하여 처음에는 만화가게 등을 하다가, 운수업으로 전업하여 전국을 상대로 화물을 나르게 된다. 75년 첫 아들을 얻게 되었고, 우연하게 연고도 없는 지곡동을 삶의 터전으로 택하게 되었다.



84년 이었다. 당시만 해도 지곡동은 시골 그대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이었다고 한다. 본인은 가난을 타개하고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과 자식에게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곳을 택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살던 집을 정리하여, 지곡동의 빈집을 사서 정착을 하게 된다. 이주 당시에 지곡동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선생이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곳은 동네 인심이 후하여 서로 나눠먹고 도와가며 사는게 선생의 마음을 더욱 잡아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 그는 동네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2.5톤의 화물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눈이 내린 날이면 민속촌 고갯길을 두어 번씩 오가곤 했다.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나름의 보람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동네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수원 시장으로 나가는 농산물(장집)을 주로 배달하고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당시 지곡동은 전화는 개통이 되었고, 상수도는 지금을 기준으로 7.8년쯤 전에 개설되었지만 아직도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았다. 50가구 미만이었던 동네는 이제는 곳곳에 집이 들어서고 찻집과 맛집 등이 들어차 있기도 하다. ‘하꼬방’이라 부르던 구멍가게가 고작이던 마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찌든 시절을 보내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게 행복으로 알고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이곳은 나름대로 물이 깊어 아이들의 물놀이도 하곤 했던 곳이다.

동네에서도 생활력과 협조도의 인정을 받아 현재 지곡동 개발위원장을 7년째하고 있다. 개발위원은 6명으로 대소사를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마을 통. 반장에게 전달하여 마을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태도가 배어 있는 게 장점인 것이다. 백암에 나름의 농토도 마련하여 이제는 다소의 여유도 생겼다.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면 사는게 제일의 생활조건이다. 남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 정도를 넘지 않는 욕심 없는 삶이다.

앞으로도 마을의 도로확충(확장)이 되고 자연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는 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곡동 이용주(李容周) 선생의 삶

선생은 1929년 3월25일 경북 의성(義城)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일찍 타계하신 선친을 대신한 형님의 신세지기 싫어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과 동시에 대구로 진출하여 자립을 결심한다.

정부수립이후 1949년 육군에 입대하여 3사단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북진(北進)시에는 백두산까지 올랐다. 포항에서 38선 넘어 원산점령은 소속부대가 먼저 했다. 그리하여 2계급 특진의 영예도 가졌다.

53년 휴전 후에 처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월급은 6900원, 보리죽도 못 먹는 사람이 많던 시절이었다. 결혼은 10월18일에 하였다. 군부대에서는 통신교육을 통해 통신병과에서 특무상사로 근무했다. 같은 부대소속 공병대에서 근무하였던 팔촌처남의 소개로 장가를 들게 된다. 사람이 괜찮다는 평판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결혼은 군대에서 이야기가 많았으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이야 하다가 들게 되었다. 상사는 일년에 휴가는 한번이었다. 간성에서 3사단의 역할은 봇도랑 터지면 가래역할 하듯이 하였다.

일주일 휴가로 치른 결혼식은 신혼여행도 해보지 못하였고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살고자 원했으나 박봉 등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 떨어져 살게도 되었다. 제대는 55년에 했다. 제대하지 말고 장기복무 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장인도 처남도 전쟁통에 모두 돌아가셨기에 지곡동으로 들어와 손수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 이곳 지곡동은 처가의 동네였다.

사랑채라도 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유의 군대 정신으로 새 삶을 일구기로 한다. 고생 많이 했다. 12월에 손수 집을 짓고 병아리 50마리를 키우기 시작하여 그것이 송아지가 되고 차츰 살림이 불어나게 되었다. 농토도 직접 샀다. 아들 둘은 먼저 잃게 되었고 현재 1남 3녀를 두고 있다. 손녀가 셋이다.



55년 이주 후 60년 이상 지곡동에서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다. 당시에는 100여 호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원도로는 뒷산에 바위가 튀어나왔고 앞길 쪽은 2미터 낭떠러지의 논으로 트럭에 짐을 싣고 다니던 사람이 오가다 빠졌을 때는 한밤중에도 그 일을 도왔다.

1972년에 청년회장을 시작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5년여 하던 중 군수실을 찾아가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길을 내게끔 수완도 발휘하였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 시장은 주로 수원을 이용하였고 오로지 걸어서 다녔다.

동년 대에는 고 서상린 의원에게 상동 저수지 축

조를 부탁해, 일할의 자부담을 꺼려하던 사람들을 설득하여 농업용수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새마을 지도자 5년에 박스형 다리를 7개 만들기도 하였다. 밀주단속이 있을 때나 땀감이 없어 산에서 나무하던 시절엔 산림감시원등을 막아주기도 했다. 80년대에 마이크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원했을 때 도청 국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해 성과도

이루었다.

군대 연금은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기에 연금혜택은 없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상이용사의 일탈이 횡행했기도 했다. 발걸음이 좋았던 시절에는 아내와 여행도 많이 다녔다. 타고난 건강 덕에 아직도 동작이 빠르다. 둘이서 사는 지금 식사와 빨래를 직접해주는 87세 고령의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보금자리도 지곡동 삼거리 초입에 산뜻하게 자리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두주불사였으나 노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철칙이다. 아들은 수지에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씩은 들른다고 한다.

년 전에 하갈리에 군부대가 있을 때 부대장이 찾아와 6.25 참전에 대한 강연을 요청 받고 가서 사례비를 준 것을 없는 병사들 휴가갈 때 쓰라고 되돌려 준적도 있다. 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시장표창도 수상하였고 무공수훈자회 자문위원도 하고 있다.

군에서 배운 그대로 체력관리를 잘하고 있다. 지금도 마을의 발전을 바랄뿐이다.

■ 남기주

지곡동 이모저모 5

- 5-1 지곡동 마을협동 운동 264
- 5-2 문서로 보는 지곡동 271